

#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신숙재\*\*  
Shin, Suk Jea  
정문자\*\*\*  
Chung, Moon J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ausal relationships among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parenting efficacy,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s a function of child's sex. The subjects were 419 boys and 414 girls in the 3rd grade of elementary schools in Inchon city, and their mothers. Conflict Tactics Scales (Straus, 1979), Parenting Stress Index (Abidin, 1990),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Gibaud-Wallston & Wandersman, 1978) were revised for use in this research. A modified version of the Social Support Scale (Pak, 1985) and Teamwork of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Abidin, 1988) were used. The data were analyzed with one way ANOVAS, Pearson's correlations, and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by the LISREL 8.03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1) The more mothers felt parenting stress and the less they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2) The process leading to mothers' coercive parenting behaviors differed as a function of child's sex. For mothers of boys,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had an indirect effect on coercive parenting behaviors through the mediation of parenting efficacy. For mothers of girls, however, parenting stress had a direct effect on coercive parenting behaviors.

---

\* 본 논문은 1997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원광아동상담센타 상담연구원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과거의 연구는 부모변인을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는 관점이 우세하였으나, 최근에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호혜적 관계라는 인식을 갖게 됨으로서 많은 연구가 부모자녀 관계를 상호영향의 결과로 보고 있다(Hetherington & Martin, 1986). 또한 생태학적 관점의 대두로, 부모가 자녀양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부모 자신과 아동의 특성 뿐만 아니라 부모가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되는 역할기대, 스트레스, 그리고 지원 등에 달려있음이 강조되어왔다(Belsky, 1984; Bronfenbrenner, 1986; Luster & Okagaki, 1993). 그러나 생태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변인으로 양육행동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대부분 변인들의 관계에 대하여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는 작업이었으며,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Duncan과 McAuley(1993)는 사회적 지원과 행동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라는 인지적 구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 효능감은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Duncan & McAuley, 1993; Teti & Gelfand, 1991; Welch & West, 1995). Johnston과 Mash(1989)는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서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 중에서도 신체적 차별이나 협

박과 같은 강압적인 행동은 아동의 공격성과 같은 부적응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으로서 부모의 스트레스나 사회적 지원과 관련지어 많이 연구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임상집단, 학대부모, 십대모나 편모 등의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Murata, 1994; Patterson, 1982 Pianta & Egeland, 1990; Unger & Wandersman, 1988). 따라서 일반집단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부모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들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작업은 일반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행동뿐만 아니라 아동의 부적응발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하게 될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르며 이는 부부관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Goldberg, 1990; Trickett & Susman, 1989)에 비추어 볼때,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같은 맥락적 변인과 부모효능감 변인의 상호관련 양상은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집단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양육과 관련되는 맥락에서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그리고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측정하여 이런 변인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을 설명하며, 이러한 경로가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른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강압적 양육행동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의 효과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그리고 부모효능감은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Ⅱ. 이론적 배경

### 1.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와 양육행동과의 관계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생태학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다(Abidin, 1992; Cochran & Brassard, 1979; Crnic & Greenberg, 1990).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를 보면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보와 도구적 지원 그리고 정서적 지원이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의 질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ongfellow, Zelkowitz, Saunders & Belle, 1979; Unger & Wandersman, 1988; Weinraub & Wolf, 1983). 또한 Hashima와 Amatoss(1994)의 연구에서는 다른 형태의 도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를 키울 때 받은 도움만이 어머니의 처벌적이고 냉담한 행동을 감소시켜주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Belsky(1984)에 의하면 좋은 부부관계는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보도록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지원체계이며, 배우자가 제공하는 지원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만족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여러 실증적 연구에서 부부관계의 질이나 만족감이 달라짐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달라짐이 입증되었다. 부부가 서로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자녀 행동에 대한 지각은 더욱 부정적이며(Goldberg, 1990), 자녀와의 상호작용도 덜 긍정적이었으며 양육태도도 더 거부적이고 적대적이었다

(Olweus, 1980).

한편 Crnic과 Greenberg(1990)는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부모 역할수행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주요 생활사건 경험보다 더 주요한 스트레스 근원으로서 아동문제와 부모의 정신건강, 그리고 가족기능을 더 잘 예언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주요 생활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부모의 아동행동에 대한 부정적 지각과 그에 따른 강압적인 부모 반응과 더 관련이 있었으며(Krech & Johnston, 1992), 아동에게 명령이나 비난을 많이 하는 등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손상하였음이 보고되었다(Whipple & Webster-Stratton, 1991).

### 2. 부모 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부모역할 수행의 차원에서 볼 때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Johnston & Mash, 1989). Crockenberg(1981)는 양육경험이 많은 주변 사람이 부모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칭찬한다면, 이러한 경험은 어머니의 내적 효능감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양육기술과 행동이 개선된다고 하였다. Belsky와 Vondra(1989)도 좋은 부부관계는 부모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안녕의 증진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부모역할 기술이 좋아지게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 효능감은 사회적 지원에 대한 지각과 밀접하게 연관될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부모의 심리적 증상과 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의 영향을 매개한다는 연구가 있다. 예를 들면 Cutrona와 Troutman(1986)은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이 산후우울증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밝히는 작업에서 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Teti와 Gelfand(1991)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이 어머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 효능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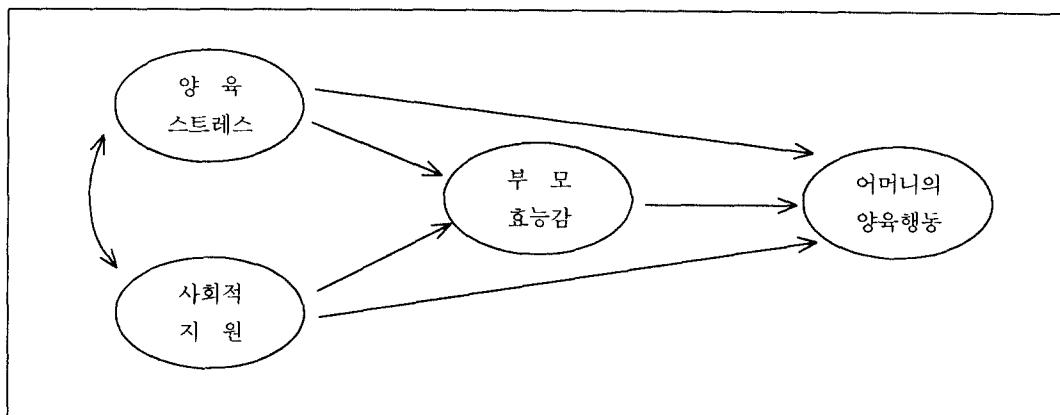
### 3.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모형

Belsky(1984)는 아동학대나 방임과 같은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원인들을 밝힌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부모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bidin(1992)은 Belsky(1984)의 모형이 부모를 사고하며 계획하는 개인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인지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이론에 근거하여, 부모 내면의 신념체계와 인지가 중심역할을 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Abidin(1992) 모형에서 부모가 양육 스트레스를 느끼면 대처자원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때 대

처자원으로 다양한 변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단지 같은 수준의 변인으로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대처자원을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 양육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설정하고는 있으나 여러 대처자원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처자원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선행연구(Cutrona & Troutman, 1986; Teti & Gelfand, 1991)에 의하면 부모효능감은 사회적 지원이나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관심을 받아왔으나, Belsky(1984)나 Abidin(1992) 모형에서는 부모효능감의 구체적인 역할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이론적 배경에 기초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심리적 특성인 부모효능감이 매개하고 있음을 〈그림 1〉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이론적 모형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인천의 중류층 지역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의 3학년 남학생 419명, 여학생 414명과 그들의 어머니 833명이었다. 연구대상 아동을 3학년생으로 정한 이유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머니에 국한시켜 연구한 경우가 많지 않으며, 또한 이 연령의 아동들이 어머니 행동을 질문지로 보고할 수 있는 최저 연령으로 예비조사 결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부모효능감을 그리고 종속변인으로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을 선정하였다.

##### 1)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완성하기 위해, 서혜영(1992)이 번안한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선정하여 내용이 중복되는 문항을 삭제하고 부정문의 일부를 긍정문으로 고쳐 30문항으로 만들어서 요인분석하였다. 통계적 특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3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각 요인의 고유치는 요인 I이 3.27, 요인 II가 2.91, 그리고 요인 I은 2.00이었으며, 각각의 설명되는 변량은 40%, 36%, 그리고 24%로 나타났다.

이 3개 요인의 문항내용에 기초하여 요인 I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요인 II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그리고 요인 III은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라고 명명하여 사용하였다.

##### 2) 사회적 지원

###### (1) 주위의 도움

주위의 도움을 측정하기 위해서 박지원(1985)이 개발한 25개 문항의 사회적 지원척도를 남편 외의 주위 사람으로부터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원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 (2) 남편의 협력

남편의 협력을 측정하기 위해, Abidin(1988)이 개발한 Parenting Alliance Inventory(PAI)의 하위척도인 16개 문항의 Teamwork을 연구자가 번안, 수정하여 총 13개 문항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남편이 부모로서 부인과 대화하고 지원해주는 정도와 자녀를 평가하는 시각과 자녀문제를 다루는 방법에서 부인과 얼마나 잘 합의되는지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 3)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16문항으로 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번안, 수정한 후 요인분석하여 2요인을 추출하였다. 각 요인의 고유치는 요인 I이 2.81이고 요인 II는 1.74이었으며, 설명변량은 각각 62%와 38%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문항내용에 기초하여 요인 I은 '부모효능감'으로, 그리고 요인 II는 '부모로서의 불안감'이라고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는 변인인 부모효능감 요인을 결과의 분석에서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 4)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강압적 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를 만들기 위하여, 송혜린(1992)이 번안

한 16문항으로 구성된 Straus(1979)의 Conflict Tactics Scales(CTS)를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한 도구를 요인 분석한 결과 두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의 고유치는 요인 I 이 2.56이고 요인 II 가 1.59이었으며, 설명변량은 각각 62%와 38%이었다.

요인 I 은 7문항으로 ‘강압적 양육행동’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요인 II 는 5문항으로 ‘합리적 양

육행동’이라고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는 변인인 강압적 양육행동 요인만을 결과의 분석에서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모든 문항은 5점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별 도구의 문항수, 내적 신뢰도계수와 가능한 점수범위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변인별 도구의 문항수, 내적 신뢰도계수와 가능한 점수범위

변 인	측 정 변 인	문항수	가능한 점수범위	$\alpha$
양육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8	8-40	.81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9	9-45	.74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3	3-15	.76
사회적 지원	주위의 도움	12	12-60	.91
	남편의 협력	13	13-65	.85
부모 효능감	부모 효능감	9	9-54	.78
양육행동	강압적 양육행동	7	7-35	.76

### 3. 연구 절차

본조사는 1996년 10월 중에 연구 대상으로 임의 선정된 인천의 3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19개 학급의 아동과 이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아동용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질문지(15문항)는 보조 연구자와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본 연구자가 직접 반별로 실시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인구론적 변인들에 관한 문항들과 양육 스트레스(30문항), 주위의 지원(12문항), 남편의 협력(13문항), 부모효능감(16문항)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에게 배부된 질문지 878부 중 846부가 회수되었으며, 아동용과 어머니용 질문지가 한쌍이 되지 않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는 제외되어, 최종적

으로 83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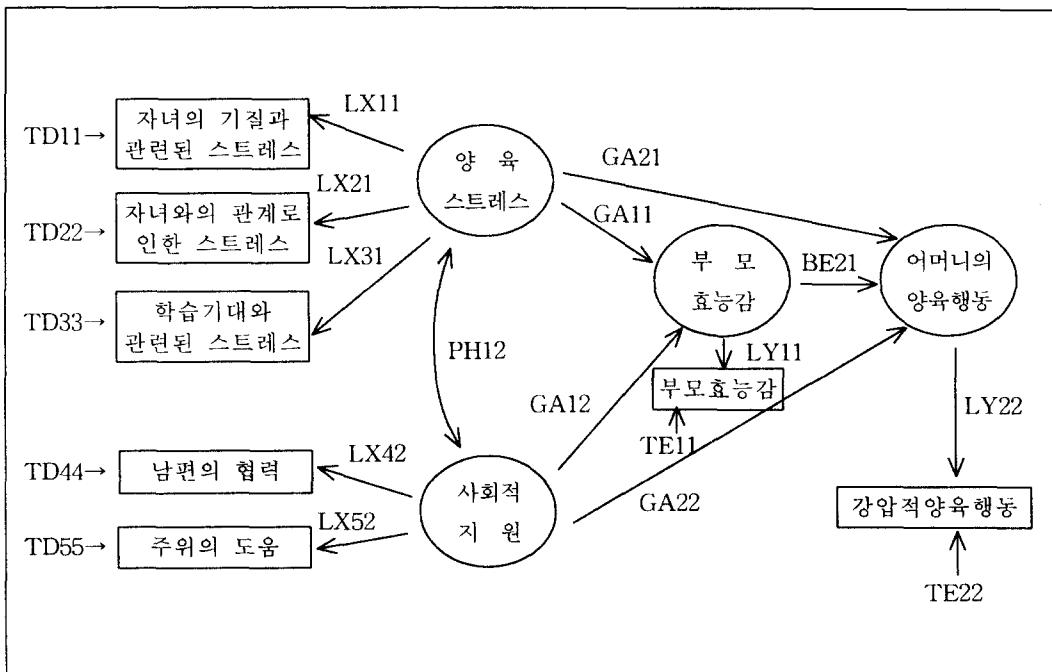
### 4. 자료 분석

자녀의 성에 따라 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차이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성별로 각 측정변인간의 관계를 알기 위하여 상호상관을 구하였다.

연구문제를 위하여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된 바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이론적 모형인 〈그림 1〉을 기본모형으로 설정하여 자녀의 성별로 공변량 구조분석을 하였다. 기본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측정변수와 이론변수간의 가능한 경로를 설정한 검증구조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분석과정에서 측정변

수와 이론변수간의 경로 중 LX11, LX42, LY11, LY22는 공통적으로 1.0으로 고정되었다. 그리고 이론변수가 하나의 측정변수만을 가질 경우 자유특징수의 추정에 의해서 생기는 편파성

(bias)을 피하기 위해서(이순복, 1990), TE11과 TE22은 각 측정오차 변량의 추정치(각 측정오차 변량  $\times 0.1$ )로 고정시켰다.



〈그림 2〉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검증구조

#### 그림설명

외생변인: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내생변인: 부모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행동

외생변인의 측정변인: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X1),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X2), 학습 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X3), 남편의 협력(X4), 주위의 도움(X5)

내생변인의 측정변인: 부모효능감(Y1),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Y2)

GA: 외생변인이 내생변인에 가지는 경로계수, BE: 내생변인간 경로계수, PH: 외생변인간 공변량 LX:X에 대한 요인계수, LY: Y에 대한 요인계수, TD:X의 측정오차, TE: Y의 측정오차

본 연구의 검증구조(그림 2)에 자료를 일차 적 용시킨 결과 적당한 모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수리적 결과를 참고하고 이론을 고려하면서 단일모델 방식으로 현실자료에 보다 적합한 모형 찾기를 하였다. 이를 위하여, LISREL(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 프로그램 8.03버전 (Joreskog & Sorbom, 1993)을 이용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을 하였으며, 모형검증을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들의 계산은 최대가능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이 사용되었다.

#### V. 연구 결과

##### 1. 자녀의 성에 따른 차이

측정변인의 점수가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표 2〉를 살펴보면, 자녀의 기질과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점수에서 자녀의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강압적 양육행동 점수에서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남아의 어머니는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학습기대로 인해 여아 어머니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가 보기에 남아어머니가 여아어머니보다 자녀에게 더 강압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왔다.

〈표 2〉 자녀의 성에 따른 측정변인별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측정변인	자녀의 성별		남(n=366)		여(n=363)		<i>F</i>
		<i>M</i>	<i>SD</i>	<i>M</i>	<i>SD</i>			
양육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19.20	(5.69)	18.28	(5.63)			4.77*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21.13	(5.23)	20.66	(5.29)			1.45
	학습 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8.86	(2.93)	7.94	(2.90)			18.43***
사회적 지원	남편의 협력	49.31	(7.95)	48.72	(7.93)			1.01
	주위의 도움	44.59	(9.30)	44.46	(9.69)			0.03
부모 효능감	부모 효능감	31.69	(4.87)	31.37	(4.93)			0.77
양육행동	강압적 양육행동	12.92	(4.88)	11.69	(4.28)			13.20***

\**p*<.05 \*\*\**p*<.001

##### 2.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부모효능감 그리고 양육행동간의 관계

우선 남아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각 측정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표 3〉과 같다.

〈표 3〉을 살펴보면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척도 간에 각각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남편의 협력과 주위의 도움은 각각 양육 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과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즉 남편과 주위의 도움이 많을수록, 어머니는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으며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였다. 부모효능감 또한 양육 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영역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남편의 협력과 주위의 도움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전반적으로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리고 남편이 부모로서 도와주며 양육에 대한 의견이 자신과 일치하며 주위의 사람도 도와준다고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

행동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및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또한 자녀의 기질이 까다롭다고 느낄수록, 남아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강압적

으로 행동한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은 부모효능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어머니가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낮을수록 남아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강압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하였다.

〈표 3〉 남아 어머니의 각 측정변인간 상관관계

(N=363)

측정변인		자녀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남편의 협력	주위의 협력	부모 효능감	강압적 양육행동
양육 스트레스	자녀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1.00						
사회적 지원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42***	1.00					
부모 효능감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35***	.41***	1.00				
강압적 양육행동	남편의 협력	-.20***	-.45***	-.21***	1.00			
지원	주위의 도움	-.07	-.30***	-.04	.32***	1.00		
양육행동	부모 효능감	-.24***	-.51***	-.28***	.44***	.27***	1.00	
		.11*	.09	.16**	-.04	.06	-.13*	1.00

\*p&lt;.05 \*\*p&lt;.01 \*\*\*p&lt;.001

〈표 4〉 여아 어머니의 각 측정변인간 상관관계

(N=350)

측정변인		자녀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남편의 협력	주위의 협력	부모 효능감	강압적 양육행동
양육 스트레스	자녀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1.00						
사회적 지원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50***	1.00					
부모 효능감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38***	.42***	1.00				
양육행동	남편의 협력	-.18**	-.42***	-.19***	1.00			
지원	주위의 도움	-.15***	-.33***	-.07	.32***	1.00		
양육행동	부모 효능감	-.27***	-.59***	-.22***	.40***	.30***	1.00	
		.16**	.12*	.06	-.06	.03	-.05	1.00

\*p&lt;.05 \*\*p&lt;.01 \*\*\*p&lt;.001

다음으로 여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각 측정변인의 상관관계를 보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면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변인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의 협력과 주위의 도움은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변인과 부적상관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가장 관련이 높았다. 부모효능감은 양육 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영역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남편의 협력 및 주위의 도움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여아 어머니

는 자녀양육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양육에서 남편의 협력과 주위의 도움 또한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및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여아가 보기에 어머니가 자신에게 강압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함을 알 수 있다.

### 3.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모형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적합한 모형찾기를 한 결과, 남아와 여아 어머니 자료 모두 모형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부합지수가 별로 손상되지 않고 비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보다 간명한 모형인 모형 2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모형찾기 과정에서 나타난 부합지수는 〈표 5〉에 제시되었으며, 모형의 전반적 지수가 남아와 여아 어머니별로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강압적 양육행동에 관한 수정된 모형들의 부합지수

	$\chi^2$	$df$	$p$	GFI	AGFI
(남아 어머니)					
기본모형	27.536	10	.0021	.977	.936
모형 1 (수정 1)	29.608	11	.0018	.975	.937
모형 2 (수정 2)	30.182	12	.0026	.975	.941
(여아 어머니)					
기본 모형	27.270	10	.0023	.979	.941
모형 1 (수정 1)	27.311	11	.0041	.979	.947
모형 2 (수정 2)	27.931	12	.0056	.978	.950

〈표 6〉 강압적 양육행동에 관한 모형의 전반적 지수

	$\chi^2$	$df$	$p$	GFI	AGFI	NFI	NNFI	RMR
(남아어머니)	30.182	12	.0026	.975	.941	.934	.927	1.516
(여아어머니)	27.931	12	.0056	.978	.950	.945	.943	1.050

〈표 6〉에서 나타난 전반적 지수를 종합해 볼 때 모형찾기에 의해 최종적으로 도달한 강압적 양육 행동에 대한 경로모형은 모두 현실자료에 잘 부합되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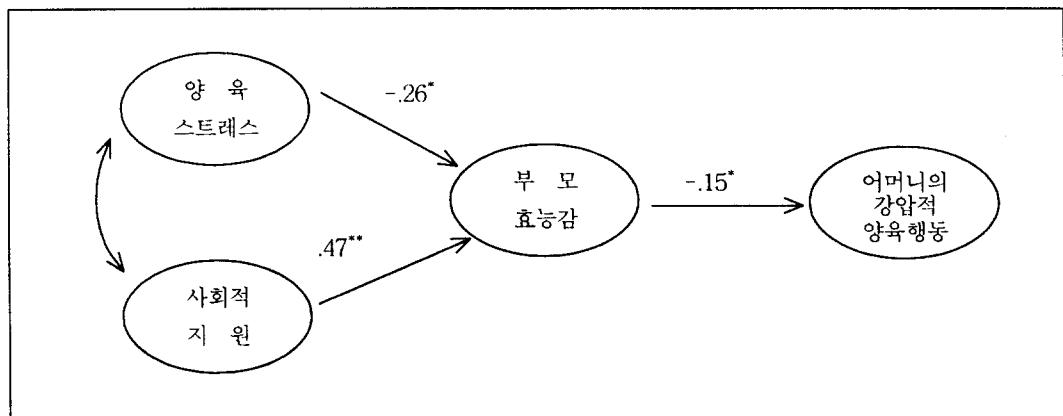
어머니의 강압적 행동에 관한 모형의 측정구조와 이론구조의 경로계수 및 고정지수가 〈표 7〉에

있다. 그리고 남아 어머니와 여아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에 대한 이론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론구조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를 〈그림 3〉과 〈그림 4〉에 각각 제시하였다.

〈표 7〉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에 관한 모형의 측정구조와 이론구조의 경로계수 및 고정지수

(N=366)

경 로	비표준화 계수(표준화 계수)		고정지수(표준오차)	
	남 아	여 아	남 아	여 아
<b>(측정 구조)</b>				
<i>LX11</i>	1.00(.48)	1.00(.52)		
<i>LX21</i>	1.71(.89)	1.77(.98)	7.55*** (.23)	8.70*** (.20)
<i>LX31</i>	.51(.48)	.43(.44)	6.64*** (.08)	7.04*** (.06)
<i>LX42</i>	1.00(.72)	1.00(.64)		
<i>LX52</i>	.75(.46)	.96(.50)	6.28*** (.12)	6.46*** (.15)
<i>LY11</i>	1.00(.95)	1.00(.95)		
<i>LY22</i>	1.00(.95)	1.00(.95)		
<b>(이론 구조)</b>				
<i>GA11</i>	-.45(-.26)	-.56(-.35)	-2.20* (.20)	-3.18* (.18)
<i>GA12</i>	.38(.47)	.39(.42)	3.10** (.12)	2.97** (.13)
<i>GA21</i>	.00(.00)	.18(.13)		2.22* (.08)
<i>GA22</i>	.00(.00)	.00(.00)		
<i>BE21</i>	-.15(-.15)	.00(.00)	-2.54*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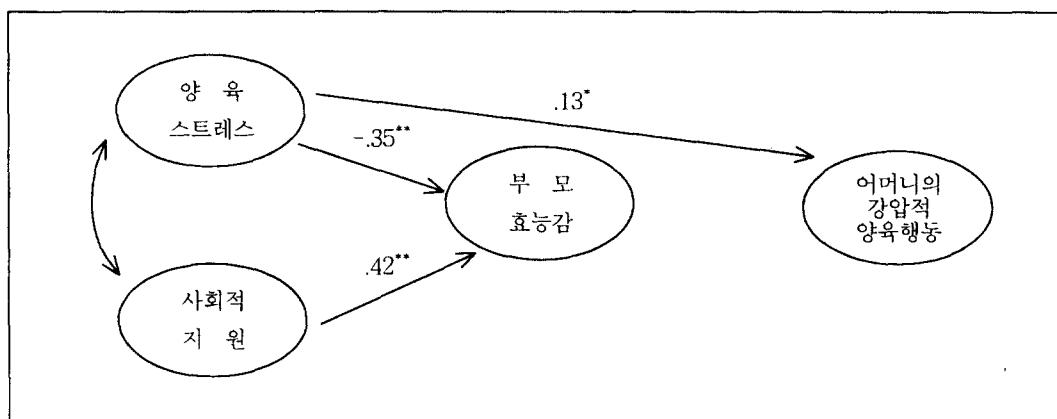
\* $p<.05$  \*\* $p<.01$  \*\*\* $p<.001$ \* $p<.05$  \* $p<.01$ 

〈그림 3〉 남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에 관한 이론구조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그림 3〉을 살펴보면,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효능감에 부적인 직접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이 부모효능감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는 반면에 부모효능감은 강압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부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4〉를 보면,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효능감에 부적인 직접효과가 있으며 사회적 지원이 부모효능감에 정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만이 강압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 어머니는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면 여아에게 강압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p<.05$    \*\* $p<.01$

〈그림 4〉 여아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에 관한 이론구조의 경로와 표준화계수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그리고 부모효능감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경로가 어떠하며, 이러한 경로가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부모의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Belsky(1984) 모형과 Abidin(1992) 모형을 참고하고 관련된 선행연구에 근거해서,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그리고 부모효능감이 어머니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경로를 도식화하였다(그림 1 참고). 이와 같이 도식화한 이론적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설정하고 남아와 여아 어머니별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그리고 부모효능감 변인이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남아 어머니의 경우는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이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에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아 어머니의 경우는 부

모효능감이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나 강압적 양육행동과는 관련되지 않았으며, 양육 스트레스만이 직접적으로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에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녀의 성에 따라 강압적 양육 행동을 설명하는 경로가 다르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딸을 키우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딸에 대한 강압적 양육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만, 아들을 가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효능감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아들에 대한 강압적 행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자녀의 성에 따라서 다르다는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남아 선호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녀를 키울 때 딸보다 아들을 더 위해주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는 딸을 대할 때 아들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에 양육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면 딸에게 직접 강압적으로 행동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아들은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을 대할 때 딸보다는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는 동안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또한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어머니 자신이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별로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 아들과 마찰이 생기면 아들에게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 같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원의 부족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강압적 양육행동에 간접적으로 효과를 미쳤으나, 딸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원이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강압적 양육행동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자녀의 성에 따라 어머니가 가지는 부모효능감의 성격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남아 어머니와 여아 어머니 모두 부모효능감이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양육 스트레스가 많고 사회적 지원이 적으면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낮았다. 그러나 이들 변인들간의 상대적인 관련강도를 고려하여 살펴보면, 여아 어머니의 경우 부모효능감은 양육 스트레스( $\gamma = -.35$ )와 사회적 지원( $\gamma = .42$ )과 비슷한 정도로 관련성이 있었으나, 남아 어머니의 경우 부모효능감은 양육 스트레스( $\gamma = -.26$ )보다 사회적 지원( $\gamma = .47$ )과의 관련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딸을 키우는 경우도 사회적 지원이 부모효능감 인식과 중요하게 관련되기는 하지만, 아들을 키우는 경우에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부모로서의 효능감 인식에 보다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겠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아 어머니의 경우 사회적 지원이라는 이론변수를 설명하는데 있어 주위사람들의 지원(SMC=.21)보다 배우자의 협력(SMC=.52)이 훨씬 관련성이 높은 측정 변수로 나왔다. 즉 사회적 지원의 많은 부분이 남편의 협력으로 설명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주위사람의 도움보다 남편이 부모로서 제공하는 협력과 양육에 대한 의견의 일치도가 어머니가 아들을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아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효능감 형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딸과 달리 아들을 키우는 경우 남편이 부모로서 별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이의 영향을 받아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낮아지고, 이를 매개로 하여 어머니가 아들에게 강압적으로 대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딸 보다는 아들을 키우는 경우에 어머니의 부

모효능감 형성에 남편의 협력이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다. 첫번째는 남편이 딸보다는 아들의 양육에 더 관여하기 때문에 남편의 협력이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부모로서의 효능감 인식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두번째는 아들을 키우는 경우 여자인 어머니는 남자의 성장과정과 또래관계와 같은 측면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들을 키울 때 남편이 아버지로서 관여하고 협조하여야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다는 어머니의 기대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세번째는 어머니가 딸보다는 아들을 키울 때 부담이 많으므로 남편의 협력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여아보다 남아를 키울 때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이상의 결과와 논의에서 시사되는 것은 어머니가 아들이건 딸이건 자녀에게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이 어머니의 의도적인 행위이거나 어머니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자녀와 문제 가 생길 때 어머니가 자녀에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머니가 받은 스트레스의 영향이거나 혹은 주변사람과 남편의 부족한 지원 등 복합적인 결과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가 양육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남편이나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별로 없어서 부모효능감이 낮아지고, 이러한 과정이 결국은 자녀에 대한 강압적 양육행동을 설명한다는 맥락에서 볼 때, 어머니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상관관계에 기초한 횡단적인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 검증된 모형의 경로가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험연구나 종단적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예측변인이 어머니의 강압적 행동을 설명하는 변량은 매우 작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은 문항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어머니가 자녀에게 심하게 강압적으로 하는 양육행동을 주로 포함하고 있어, 어머니가 일반적으로 하는 정도가 약한 강압적 양육행동은 과소평가되어 응답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어머니들은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강압적 양육행동을 그대로 기술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응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한점을 최소화시키는 반응척도를 사용하면서 행동관찰도 함께 하는 방법이 신뢰로운 결과를 얻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에 대한 설명변량이 작게 나타났지만 설정된 예측변인들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이 보다 신뢰롭게 측정되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설명되는 정도가 높아졌으면 한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비교적 합리적이면서 강압적이지 않은 양육행동을 하는 일반적인 초등학교 3학년생 어머니들이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머니가 아닌 대상으로 일반화시키는데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많으며 사회적 지원이 적을수록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낮다.
-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부모

효능감이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경로는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르다. 구체적으로 남아의 어머니는 양육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적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낮으며, 부모효능감이 낮을수록 아들에게 강압적으로 행동한다. 여아의 어머니는 양육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딸에게 강압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딸에 대한 강압적 행동과는 관련이 없다.

### 참 고 문 헌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혜영(1991). 장애아 어머니의 적응과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송혜린(1992). 아동의 공격성과 갈등해결 전략 및 부모의 긴장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순복(1990). 공변량 구조분석. 서울:성원사.

Abidin, R. R. (1988).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Unpublished Scale, University of Virginia.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Charlottesville, VA:Pediatric Psychology Press.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1, 407-412.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Cochran, M. M., & Brassard, J. A. (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Child Development*, 50, 601-616.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Duncan, T. E. & McAnley, E. (1993). Social support and efficacy cognitions in exercise adherence: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6, 199-218.

Giban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August).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Gjerde, P. F. (1986). The interpersonal structure of family interaction settings:Parent-adolescent relations in dyads and triads. *Development Psychology*, 22, 297-304.

Goldberg, W. A. (1990). Marital quality, parental personality, and spousal agreement about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for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36, 531-556.

Hashima, P. Y., & Amato, P. R. (1994).

- Poverty, social support, and parent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5, 394-403.
- Hetherington, E. M., & Martin, B. (1986). Family factors and psychopathology in children. In H. Quay & J. Werry (Eds.),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of childhood* (3rd ed., pp.332-390). New York: Wiley.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8, 167-175.
- Joreskog, K. G., & Sorbom, D. (1993). *LISREL 8: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simplis command language*. Chicago: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Inc.
- Luster, T. & Okagaki, L. (1993).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urata, J. (1994). Family stress, social support, violence, and son's behavior.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6, 154-168.
- Olweus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644-660.
- Patterson, G. 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e, OR: Castalia.
- Straus,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1, 75-87.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Welch, D. C., & West, R. C., (1995). Self-efficacy and mastery: Its application to issues of environmental control, cognition, and aging. *Developmental Review*, 15, 150-171.